

절대권력과 맞짱 뜨다



민중미술가 박불뚱 광주 첫 개인전 '세월아 나오너라 달맞이 가지'

11~29일 메이홀서 5·18 특별전
세월호, 5·18, 제국주의, 국가폭력 주제
사진 콜라주 기법 최근작 50여점 전시
11일 개막식 성완경 교수 토크 콘서트도



'통조림 4'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박근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 흑백사진이 중첩돼 있다. 박근혜 현 대통령은 한구석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민중미술가 박불뚱이 제작한 사진 콜라주(Collage·오려 붙이는 기법) 작품 '번비' 내용이다.

'번비'는 좀 더 노골적이다. 번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1인칭 시점으로 묘사했다. 번기 속에서는 '번비'에 나온 세 대통령 흑백사진이 보인다. 흑백사진을 보니 번비처럼 속 시원하지 않고 답답한 기분이 느껴진다.

매년 5월이면 눈길을 끄는 5·18 특별전을 개최했던 메이홀이 올해는 박 작가를 초청해 11~29일 '세월아 나오너라 달맞이 가지'를 연다. 2012년 개관한 메이홀은 그동안 5·18특별전을 통해 한희원, 홍성남, 박재동, 임옥상 등 굵직한 작가들을 지역에 소개해 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박 작가가 광주에서 여는 첫 개인전이다.

경남 하동 출생으로 홍익대를 졸업한 박 작가는 본명은 박상모다. 그는 '박' 터지고 '불뚱'이 튀게 권력을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박불뚱'을 예명으로 삼았다. 예명에서 알 수 있듯이 박 작가는 1980년대부터 신학철, 임옥상 등과 함께 대표적 민중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물결과 붓 대신 사진을 이어 붙이며 분단과 독재,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유머를 잃지는 않는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오일 항쟁, 국가폭력, 군사문화, 탐욕적 자본주의를 주제로 작업한 최근작 50여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최후의 반찬'은 유머러스한 이름과는 달리 무거운 주제가 숨어있다. 예수 자리엔 선글라스와 군모를 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앉아 있고 박근혜, 전두환, 이명박, 김정일, 김정은 등을 12제자 자리에 위치시켰다. 오바마 미국 대



박불뚱 작가

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음식 등을 시중 들고 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처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명칭(와대단)한 대통령'은 박근혜 현 대통령을 비꼬는 동시에 세월호를 이야기한다. 여리장을 이어붙여 흐릿하게 묘사된 청와대 앞에 펼쳐진 호수와 가리앉고 있는 세월호가 등장한다. 이외에도 '역사의 부(스)림'은 임오군란, 동학혁명 등 구한말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 속 사건을 형상한 작품이다.

박 작가는 작품 곳곳에 '코카콜라 병'과 '핵무기'를 등장시키며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는다.

달을 통해 세월호 슬픔을 승화시킨 전시주제 '세월아 나오너라 달맞이 가지'처럼 부드러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작품 속 아늑한 저녁밥상에 놓인 시민군 주먹밥은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메이홀 옆에 위치한 '갤러리바 0518'도 6월말까지 박작가 작품을 병행 전시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6시30분 오프닝에서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밴드 '꿈창전골' 멤버 사토 유키에가 출연하는 '송골라주'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또 제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을 지낸 성완경 인하대 교수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문의 010-6791-8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 김재균 의원 1주기 추모전



▶ '소나무가 있는 그곳'

11~22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제18대 국회의원, 민선 2·3기 북구정장을 지냈으며 또 화가로 활동했던 고(故) 김재균 작가(1952~2015)를 추모하는 전시가 열린다. 11~22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해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김 작가가 지난 30년 동안 틈틈이 그려왔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등산 사계와 남도 풍경을 캔버스에 옮긴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생전 "그림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색이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이다"고 했던 김씨는 무등산을 수십번 오르고 남도 땅을 밟으며 느꼈던

감성을 작품에 드러냈다. '소나무가 있는 그곳', '따뜻한 봄날에...', '무등의 기상', '무등이 보이는 들녘', '무등의 인상', '무등의 가을', '무등의 서설' 등 정감 어린 무등산을 그렸다. 설경을 소재로 삼아도 여러번 덧칠을 통해 따뜻하고 부드럽게 표현한 기법이 특징이다.

또 '햇빛 피는 농가' 등 한국적 정취와 서정이 녹아있는 작품도 출품된다.

김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그린 '노란 리본'으로 한국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는 등 예술을 통해 시대적 현안을 이야기했다. 정치·행정가, 화가 이외에 시인으로도 활동하며 1998년 시대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575-8883 /김용희기자 kimyh@

송희자·강지향 작가 꽃과 도자기의 만남



▶ 송희자 작 '무궁화 꽃자'

전남여성플라자 6월 24일까지

전남여성플라자(원장 손문금)가 송희자·강지향 작가를 초청해 2인전 '전년의 빛, 도기에 풀다'를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대와 장르가 다른 두 작가가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이다. 꽃공예를 전문으로 하는 송 작가와 도자기 공예를 전공한 강 작가는 아름다운 전남 문화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송 작가는 다양한 꽃자를 통해 아름다운 색채를 보여준다. 분홍빛 홍화꽃자, 노란 목련꽃자, 붉은 장미꽃자 등이 어우러진다. 못다한 사랑, 첫사랑 추억 등 각 꽃에 담긴 이야기

도 들려준다.

강 작가는 찻잔세트 '그라미2', 분청과 청자 아로마 오일 램프 세트 등을 출품했다. 아로마 오일램프는 직선적인 등잔대 형태를 변형시켜 곡선미를 극대화시켰고 찻잔전자는 동그랗고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제작했다.

송씨는 다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머루랑 다래랑' 대표, (사)꽃자문화진흥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씨는 전남미술대전 특별상 등을 수상했고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1-260-73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